

법철학과 유가사상 기말 시험 - 2025.6.17

- 완성된 답안은 6월17일 자정(24:00)까지 <https://lawlec.korea.ac.kr/essay> 에서 제출하십시오.
- 1번 문항에 대한 답안은 과제물 번호 “3”으로, 2번 문항에 대한 답안은 과제물 번호 “4”로 지정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 답안 분량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아래 두 문제 모두 답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 작성에 Chat GPT 등 AI를 사용한 경우, 그 점을 답안 첫머리에 **반드시 공개**하기 바랍니다.

[1] 다음 구절들 및 그 외 논어의 구절을 고려하여, 예법(禮)의 의미를 설명하라.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군자가 문물을 꼭 넓게 배우고 예법(禮)으로 자신을 제약한다면 선을 넘지는 않겠지!”

子曰：「君子博學於文，約之以禮，亦可以弗畔矣夫！」(논어, 6.27, 12.15)

“예법(禮)에 어긋나는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아.”

「非禮勿視，非禮勿聽，非禮勿言，非禮勿動。」(논어, 12.1)

“관례(冠禮)에 사용하는 모자는 삼베로 만드는 것이 예법(禮)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명주실로 만들고 있지. 그게 더 검소하니 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대로 따르겠어. (논어, 9.3)

[완성된 답안은 법철학과 유가사상 “과제물 3”으로 제출]

[2] 인(仁)에 대한 다음 구절들을 참조하여, 인(仁)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라.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강인함, 맹렬한 분노, 투박함, 어눌함. 이런 것이 인(仁)에 가까워.” 剛毅木訥，近仁 (논어, 13.27)

“의지가 굳은 선비, 인(仁)한 사람은 살기 위해 인(仁)을 해치지 않아. 오히려 목숨을 바쳐 인(仁)을 완성하지.” (논어, 15.8)

“분노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고, 이를 악물지 않고서는 발전이 없어. 내가 한 구석을 드는데, 너희들이 나머지 세 구석을 들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 되풀이 하지 않아.” (논어, 7.8)

仁이란 무엇인가? 仁은 슬픈 심정으로 남들을 사랑하고, 조심하여 화합하는 심정으로 다투지 않고, 좋아함과 싫어함을 도리에 맞게 하며, 싫어하는 마음이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며, 꺼리는 마음을 속에 품지 않으며, 질투하는 기운이 없고, 원망하는 욕심이 없고, 음험하고 교활한 처사가 없으며, 법규에 어긋나는 행동을 안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은 편안하고, 그 의지는 평화로우며, 그 기분은 온화하고, 그 욕망은 절제되어 있으며, 그 일처리는 수월하고, 그 행동은 도리에 맞다. 그렇기 때문에 평온하고 수월하며 온화하고 이치에 맞으므로 싸울 일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仁이다. (동중서, 춘추번로, 必仁且知 2)

[완성된 답안은 법철학과 유가사상 “과제물 4”로 제출]

[끝] 두 질문 모두 답하기 바랍니다.

답안 작성에 Chat GPT 등 AI를 사용한 경우, 그 점을 답안 첫머리에 반드시 공개하기 바랍니다.